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와 투자입지 및 경제공간의 변화

문 남 철*

EU Enlargement toward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Changing of Economic Space

Nam-Cheol Moon*

요약 : 최근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에 EU의 경제활동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의 중·동부유럽 확대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변화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입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동부유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의 EU 가입이 구체화되면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EU기업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인직접 투자는 넓은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구조, 적극적인 외국인자본 유치노력을 보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지역으로는 발달된 하부구조와 지역산업조직, 숙련된 노동력, 시장 등 유리한 생산요인을 지닌 대도시와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저렴한 수송비의 이점을 지닌 동·서부 유럽의 인접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동부유럽국가의 EU 통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많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수도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동·서부유럽의 인접지역이 EU의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발틱 공간은 인접국가간 교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에 발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주요어 : 유럽연합(EU), 중·동부유럽, 외국인직접투자, 경제활동공간

Abstract : As EU's enlargement toward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it is expected to change of the economic activity space of EU.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nging of economic activity space of EU with a locational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The foreign enterprises, particularly EU's firms are increasing the direct investment in the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from the middle 1990's for a raising of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a prior occupation of the potential marke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has a tendency to concentrate in Poland, Hungary, Czech and Slovakia, which has relatively a large market, a cheap and plentiful labor, a stable political system and a positive inviting polic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ws a tendency to locate generally in a big city, which has a advantageous production factors by a well-developed infrastructure and a reg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a skilled labors, a market, etc., and in a border area between East and West Europe because of a cheap and plentiful labor, a similar cultural environment and the low cost of transportation. In conclusion, as an integration of the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into EU, the capital territories of Hungary, Czech and Poland, and the border area between East and West Europe is becoming a new economic activity space of EU with a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Baltic zone is also expect to become a new economic activity space according to the augmentation of exchanges and direct investment inter near countries.

Key Words : European Un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activity space

1.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교통·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지역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증대되고, 경제활동의 범세계적 결속(globalisation)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는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은 세계화된 경제환경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인접국가와의 지역적 결속(regionalisation)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지역경제 통합체들은 경제활동의 지역 내 자급자족적 체제(self-sufficient system)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경제발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은 물론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국가들과도 통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단일통화의 사용과 금융 및 통화정책의 조화로 단일경제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심화로 경제요소의 차

*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mnc83@hanmail.net)

이성을 지닌 국가들이 통합되고,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입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체의 경제활동 공간적 구조는 재편되고 있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형태로 출범한 유럽연합(EU)은 그 동안 5차례의 지리적 확대와 경제통합으로 산업활동이 지리적으로 집중(concentration)되고, 지역별 생산요소에 따라 산업구성이 특화되는 등 경제활동공간에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Amiti, 1999; Midelfart-Knarvik et al., 2000; 문남철, 2004). 그리고 최근 6차 확대과정을 통해 중·동부유럽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새로이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의 형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는 그동안 산업구조 및 산업발달 수준이 비슷한 서부유럽의 확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양 지역간 경제요소의 차이로 경제활동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EU의 경제활동공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높은 국내 생산비용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의 압력을 받아온 서부유럽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실현과 생산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중·동부유럽국가에 대한 역외가공무역과 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EU의 중·동부유럽 확대배경과 중·동부유럽국가의 EU 가입의 추진과정(이종원, 2001; 이규영, 2001), EU확대가 EU 경제 및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김득갑, 2001, 2003; 이종화, 2001; 한국무역협회, 2003; 김홍중 등, 2003), 중·동부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인한 투자입지의 변화와 이에 따른 EU의 경제활동공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EU의 경제활동 공간변화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입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배경과 중·동부유럽국가의 EU 가입배경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동안 5차에 걸친 EU의 지리적 확대과정과 EU

의 경제활동공간 변화를 간략히 알아본다. 그리고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가 EU의 경제활동공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중·동부유럽국가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확대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입지를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예상되는 EU의 경제활동공간의 변화를 파악한다.

분석방법은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에 따른 투자입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EU의 경제활동공간의 변화를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지도화(mapping) 및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descrip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행한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중·동부유럽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와 투자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매년 발간하는 'World Investment Report'와 동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nctad.org) 자료를 이용하였다. EU 국가의 중·동부유럽국가 투자에 관해서는 유럽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과 동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uropa.eu.int)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밖에 EU의 지리적 확대배경과 확대과정, 그에 따른 경제활동공간의 변화 파악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의 지역적 범위는¹⁾ 유엔무역개발회의와 유럽위원회의 분류방식에 따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발틱 3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루마니아, 구 유고연방 등 20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은 신규 가입한 10개국 가운데 경제 규모가 작은 몰타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중·동부유럽 8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역경제통합과 산업활동의 지리적 재배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근 들어 지역경제통합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산업입지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교역장벽이 낮아지고, 생산요소와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활동의 입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통합이 심화되고 교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이 모든 국가에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제통합의 파급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파악하는 전통적 무역이론(Heckscher-Ohlin model)과 경쟁제고의 증대로 파악하는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및 자본축적을 강조하는 무역유인-투자주도(trade induced-investment led growth)가설 등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경제지리적 공간을 동질적으로 파악하고 경제활동의 지리적 이동을 불가능하다고 가정함으로써 경제통합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입지변화에 대해서는 분석의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제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인 공간은 기후 등 자연환경과 정치·사회·문화 등 문화환경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부존, 인프라 수준, 시장 접근성, 수요의 크기, 기술수준 등 경제환경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성을 보인다. 따라서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생산요소와 경제활동의 지역간 이동은 점차 활발해 지고(Ottaviano and Tisse, 2001),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새로운 공간적 구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경제지리적 공간의 '비 동질성'에 기반하여 경제통합 또는 무역자유화가 산업활동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1990년대 들어 신경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라 불리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rugeman, 1991; Venables, 1996). 이들은 경제통합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각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economic of scale)와 시장접근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과 노동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더욱 더 큰 시장으로 발전된다는 1950년대

의 순환적·누적적 성장이론(circular cumulative growth theory)과 기업과 노동은 대규모 시장에 인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1980년대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그리고 연관산업의 집적에 의한 외부경제효과(external economic effect)를 결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경제통합으로 인해 산업이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메커니즘을 스스로 강화되는 순환적·누적적 인과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즉, 새로운 기업입지 ⇒ 고용창출·소득증대 ⇒ 구매력 증가 ⇒ 수요증가·생산증대 ⇒ 기업입지의 과정을 통해 특정지역에 산업이 집중되는 집적화(concentration)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국가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집적화 정도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수익체증을 보이는 산업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은 집적화가 심화되지만, 이러한 특성이 없거나 지역적 특성을 중시하는 산업은 집적화가 낮게 나타난다.

그동안 EU의 경제통합과 산업의 지리적 집중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Sapir, 1996; Brühlhart and Torstensson, 1996; Amiti, 1999; Midelfart-Knarvik et al., 2000; 문남철, 2004), EU의 지리적 확대와 경제통합의 진전으로 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집중화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시기적으로도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들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지만 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특정 산업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산업의 지역적 분포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항공, 화학 산업 등 규모수익체증을 보이는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은 기존 입지지역 및 국가에서 지리적 집중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데 반해, 섬유·의류, 가죽·신발, 가구·목재산업 등과 같이 규모수익체증의 효과가 작고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 집중지역이 쉽게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음·식료와 같이 국가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큰 산업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유지한다. 그렇지만 규모수익체증을 보이는 산업 중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업은 생산공정의 지리적 분리를 통해 생산공정별·지역별 특화되는 수직적인 공간적 분업화 현상이 나타

나게 된다. 다시 말해 지리적 확대와 경제통합이 심화 될 경우 R&D 집약산업은 입지변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되며 오히려 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지가 강화되는 반면에 가격경쟁력이 강한 산업은 저렴한 생산요소비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생산활동이 이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활동의 지리적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3. EU의 확대배경과 경제공간

1)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배경

EU 국가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과 낮은 기술혁신 수준, 그리고 높은 국내 생산비용 등에 의해 약화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경제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상호간의 보완성을 높이고, 생산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

중·동부유럽은 그 동안 서부유럽과 가까운 지

리적 여건과 유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체제의 차이로 EU의 확대정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럽의 정치질서를 지배해왔던 알타(yalta)체제가 해체됨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확대가 활발히 모색되어왔다. 특히,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저렴한 생산요소비용과 지리적 인접성의 이점 등으로 규모의 경제 및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 이 지역으로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아울러,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은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를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그 동안 체제전환의 혼란, 민족간의 갈등 등 유럽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를 크게 해소시키는 측면도 있다.

한편,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가입 추진은 EU에 가입함으로써 EU의 재정지원과 수출시장 확보, EU기업 유치 등을 통해 피폐해진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EU회원국이 되면 농업비중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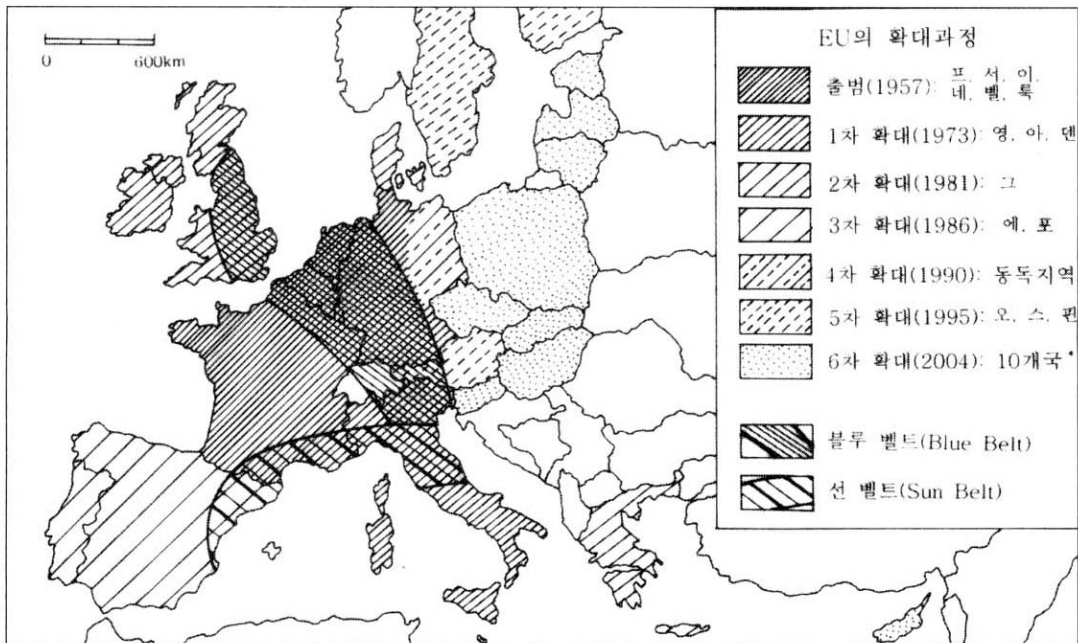


그림 1. EU의 확대과정과 경제공간

주 : 프(프랑스), 서(서독), 이(이탈리아), 네(네덜란드), 벨(벨기에), 룩(룩셈부르크), 영(영국), 아(아일랜드), 덴(덴마크), 그(그리스), 에(에스파냐), 포(포르투갈), 오(오스트리아), 스(스웨덴), 핀(핀란드)임.

* 10개국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 키프로스 임.

· 동부유럽 국가들은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농업보조금 등 EU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²⁾. 그리고 EU에 가입함으로써 상호경제원조회의(CMEA)의 해체로 상실한 수출관세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EU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부족한 자본과 재정적자를 타개하고, 선진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받아들여 노후화된 산업기반을 현대화할 꾀할 수 있다. 더욱이, EU기업의 직접투자 유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다시 구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 EU의 확대과정과 경제공간

유럽은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요소와 산업구조, 노동력, 임금조건, 기술수준 등 경제적 요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형태로 출발한 EU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기독교의 문화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리적 확대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EU는 문화와 경제적 차이를 지닌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를 지속하면서 경제의 자급자족적 체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대서양 연안국의 EU가입으로 유럽내륙 중심의 EU는 대서양과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1981년과 1986년 그리스와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산업발전과 산업구조의 차이를 지닌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경제활동의 역내 자급자족적 체제는 더욱 증대되었다. 1995년에는 북부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서부유럽의 완전한 지역경제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의 가입으로 EU는 서부유럽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국가들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흡수하고, 경제구조 및 소득수준에서 기존 회원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을 통합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의 제고와 경제의 역내 자급자족적 체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EU는 이후에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

아, 터키 등 동부유럽국가들 및 그 배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확대와 경제통합의 진전으로 산업의 지리적 집중과 국가 또는 지역별 산업구성의 특화로 EU는 경제활동공간에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그리고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신규가입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구조가 형성될 가능성 높다. 다시 말해, 유럽의 경제활동공간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고도의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과 생산공정의 집중을 통해 끊임없이 지역 경제력을 강화시켜오고 있는 블루 벨트(Blue Belt)지역과 EU의 3차 확대 이후 풍부한 노동력과 양호한 환경조건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 및 생산공정의 이전을 통해 새로이 형성된 선 벨트(Sun Belt)지역에 이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가입으로 이 지역에서도 특정지역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4.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과 경제공간의 변화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추이와 진출요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제전환에 따른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EU 가입 일정이 표면화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90년 37억 달러에 불과했던 누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995년 405억 달러, 2001

표 1.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변화(누계 기준, 10억 달러)

| | 1995(A) | 2001(B) | (A)/(B)(배) |
|--------|---------|---------|------------|
| 세계 | 2,911.7 | 6,845.7 | 2.35 |
| 서부유럽 | 1,192.4 | 2,776.6 | 2.33 |
| 중·동부유럽 | 40.5 | 160.3 | 3.96 |
| 북미 | 658.8 | 1,522.5 | 2.31 |
| 중·남미 | 201.4 | 693.0 | 3.44 |
| 아시아 | 607.4 | 1,399.1 | 2.30 |
| 아프리카 | 77.9 | 158.8 | 2.04 |
| 오세아니아 | 133.3 | 135.2 | 1.01 |

자료 : UNCTAD, 2002, World Investment Report.

년에는 1,60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1995년 대비 2001년 전 세계 누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35배, 서부유럽이 2.33배, 북미가 2.31배, 아시아가 2.30배 증가한 반면에 중·동부유럽은 3.96배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중·동부유럽 외국인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EU기업이 중·동부유럽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이루어졌다. EU는 1999년을 제외하고 이 지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지역 외국인직접투자를 주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EU 신규회원국에 대한 본격적인 역내 투자유입이 가입 후 6-8년이 지난 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UNCTAD, 1998)을 고려할 때,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된 EU기업들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그 동안 주로 자본과 경영능력을 지닌 대기업에 국한된 면이 있으나, 앞으로 EU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중·동부유럽 직접투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동부유럽 지역에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생산거점과 판매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EU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인 요인

으로는 우선, 서부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 비용, 특히 저렴한 노동임금에 기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 둘째,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과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이들 기업은 기술 및 생산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시장기반이 취약하지만,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유율 제고와 값싼 임금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부유럽을 포함한 선진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은 인수하고 있다. 셋째,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기대할 수 없으나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 확보의 경쟁에서 선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즉, 선발주자로 투자를 한 기업은 현지국가의 지역정부나 고객과의 관계, 기업인수, 유통망 구축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여 후발주자에 비하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2)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확산과정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유대감이 높은 독일, 오스트리아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은 1996년까지 이 지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약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이 지역 투자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점차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이 구체화 되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룩셈부르크 등 선진 서부유럽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에스파냐, 포르투갈 기업들이 가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지리적 확산은 EU국가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의존도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동부유럽 진출 초기인 1992~95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네덜란드만이 높은 투자 관심을 보였으나, 1996~2000년에는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부유럽 국가들이 높은 투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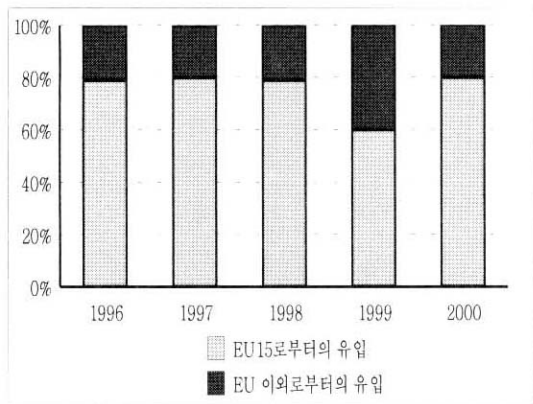


그림 2. 중·동부유럽 외국인직접투자에서 EU의 비중

자료 : Lovino, 2002, theme 2-55/2002.
www.uncta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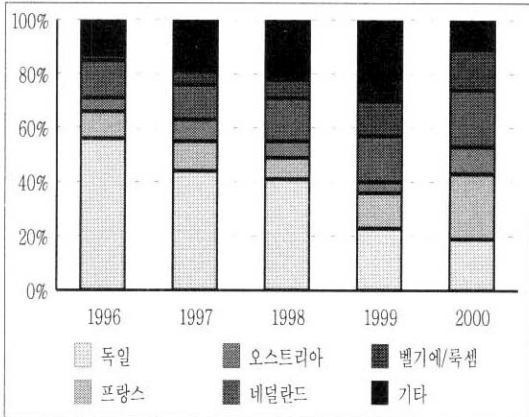


그림 3. 중·동부유럽 외국인직접투자 원천(1996~2000)

자료 : Lovino, 2002, theme 2-55/2002.
www.unctad.org.

그러나 EU 국가별 중·동부유럽에 대한 진출현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동부유럽에 가장 활발한 진출을 보인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중·동부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의존도는 EU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 기업은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를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에스파냐, 핀란드, 포르투갈 등은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현저히 낮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최근 들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기업의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선호는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인 유대감으로 투자지역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다는 면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기업은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과거 합스부르크 제국의 역사적 배경으로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과 오랜 기간동안 축적되어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에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독일기업은 중·동부유럽국가와 다양한 문화·사회적 교류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이 지역 투자환경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 동독의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활발한 경제관계는 통독 이후 독일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통독의 후유증에 따른 국내 생산환경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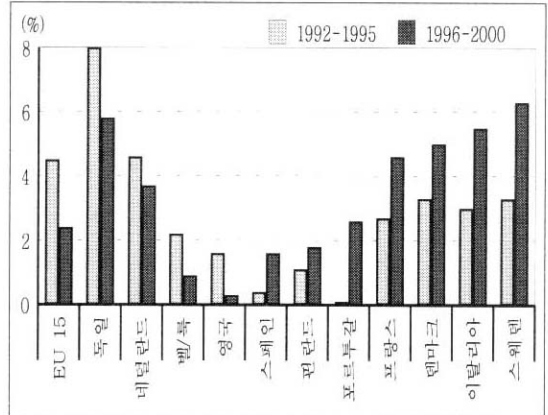


그림 4. EU 국가별 중·동부유럽 해외직접투자 의존도

주 : 중·동부유럽 투자액/총 해외직접투자액.
오스트리아는 1992~95년 50.9%, 1996~2000년 39.3%의 의존도를 보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02,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중·동부유럽으로 진출하였다.

독일과는 달리 영국기업은 경제적으로나 정치·문화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미국을 가장 선호하며, 중·동부유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경쟁력이 서부유럽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에스파냐, 포르투갈 기업들의 경우도 역사·문화적으로 관계가 깊은 라틴아메리카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부유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낮은 투자를 보였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업은 중·동부유럽이 독일어 경제권에 예속되는 것을 견제하고, 아울러 생산비용의 절감과 판매시장 확대를 위해 최근 들어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3)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과 경제공간 변화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3차 확대 이후 저렴한 노동력과 양호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생산공정의 역내 투자 유입을 통해 제조업을 발달시켜온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포함한 남(the South)

유럽 국가들⁴⁾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중·동부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보다 저렴한 노동력 공급처가 생김으로써 노동집약적산업의 지리적 재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그 동안의 확대과정을 통해 고도의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과 생산공정의 집중을 강화시켜온 북(the North) 유럽 국가들은 중·동부유럽의 가입으로 오히려 이들 산업의 집중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동부유럽 EU 가입으로 남(the South) 유럽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는지는 투자현황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남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국가에 유입된 총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EU로부터 유입된 비중이 두 그룹 모두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그룹 모두에서 EU 국가의 투자분야가 전기·전자, 운송기기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⁵⁾,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로 남유럽국가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EU의 남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두 그룹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유럽국가가 EU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의 증가율이 상승하면 중·동부유럽국가의 증가율은 감소되고, 반대로 중

·동부유럽국가 투자유입액의 증가율이 상승하면 남유럽국가의 증가율은 감소되고 있다. 한편 1999년 EU의 유럽 내 직접투자액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북유럽국가에 유입된 투자액의 증가율도 급격히 상승하였고 남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국가의 증가율은 축소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2000년 EU의 유럽 내 직접투자가 감소하면서 북유럽국가의 투자유입액 증가율은 감소되고 남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국가의 증가율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EU의 유럽 내 직접투자가 그룹 간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동부유럽 대한 EU의 산업 및 제조업종별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중·동부유럽국가와 남유럽국가의 EU 투자의 대체 대상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부유럽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사례로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의 생산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부유럽의 자동차산업은 EU의 지리적 확대와 함께 공간적으로 확산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20세기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 주변, 프랑스 파리 주변, 이탈리아 토리노 주변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서부유럽의 자동차산업은 EU의 확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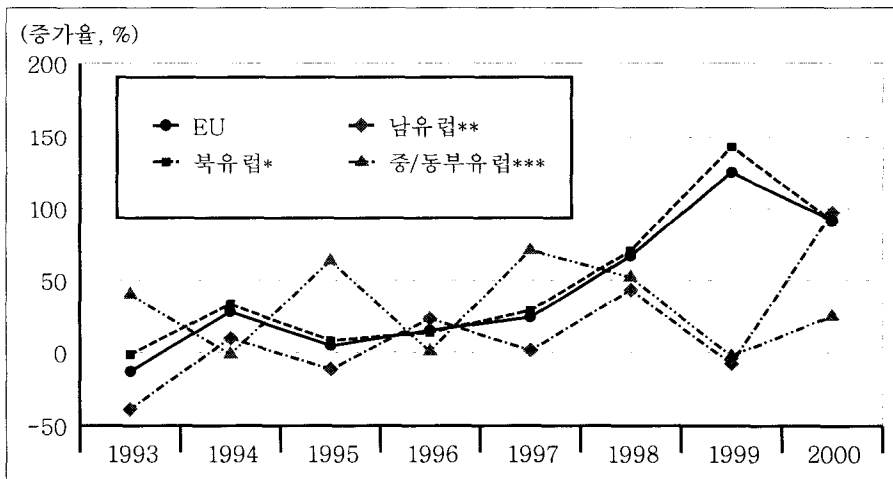


그림 5. 그룹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추이*(1993~2000)

주 : EU 15개국의 유럽지역 직접투자를 기준으로 함.

* 북유럽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 남유럽은 그리스, 에스파냐,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 중/동부유럽은 서론의 지역적 범위 참조.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02,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함께 1960년대 이후 벨기에, 프랑스 서부, 이탈리아 남부 등지 확산되었으며, 1970-80년대에는 남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에스파냐는 현재 독일 및 프랑스에 이어 유럽 3대 자동차 생산기지로 성장하였다(김홍중 등, 2003). 1990년대 이후에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이 예상되면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조립공장의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부유럽 자동차산업 입지의 공간적 확산은 EU 확대와 더불어 생산비용의 절감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저렴한 생산요소를 지닌 지역 및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조립공장이 확산, 이전되기 때문이다. 중·동부유럽은 거대시장인 서부유럽에 인접해 있고, 남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희노동력과 기본적인 산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세계적인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원가 경쟁력확보를

위해 이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중·동부유럽국가들 역시 낙후된 자동차산업의 현대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재정적 지원, 인프라구축, 노동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동차 조립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는 2개의 자동차 조립공장이 새로이 설립되고 4개의 공장이 폐쇄된 반면에 중·동부유럽에는 19개의 공장이 새로이 입지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유럽 자동차 조립공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남유럽국가에서 중·동부유럽국가로 이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 조립공장의 지역적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공정의 공간적 분리정책에 따라 서부유럽의 핵심 자동차지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홍중 등, 2003). 즉, 연구·개발과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핵심분야와 중대형 고급모델 자

표 2. 완성차업체의 중·동부유럽 및 이베리아반도 진출동향(1990년대 이후)

| 국가 | 개설 | | | 폐쇄 | | |
|-------|----------------|------------|------|---------------|---------|------|
| | 지역 | 업체 | 연도 | 지역 | 업체 | 연도 |
| 에스파냐 | Martorel | Seat | 1993 | Valladolid | Renault | 1991 |
| | | | | Barcelone | Seat | 1996 |
| 포르투갈 | Palmela | AutoEuropa | 1994 | Setubal | Renault | 1998 |
| | | | | Azambuja | Ford | 2000 |
| 폴란드 | Bielsko-Biala | Fiat | 1992 | Plonsk | Ford | 2000 |
| | Tychy | Fiat | 1992 | | | |
| | Poznan | VW | 1993 | | | |
| | Plonsk | Ford | 1993 | | | |
| | Zeran | GM/Opel | 1994 | | | |
| | Gliwice | GM/Opel | 1998 | | | |
| 체코 | Mlada Boleslav | VW/Skoda | 1991 | | | |
| | Vrchlab | VW/Skoda | 1999 | | | |
| | Kwasiny | VW/Skoda | 2002 | | | |
| | Kolin | PSA/Toyota | 2002 | | | |
| 헝가리 | Esztergom | Suzuki | 1990 | Szentgotthard | GM/Opel | 1999 |
| | Szentgotthard | GM/Opel | 1990 | | | |
| | Gyor | VW/Audi | 1992 | | | |
| 슬로바키아 | Bratislava | VW/BAZ | 1991 | | | |
| | Tmava | PSA | 2003 | | | |
| | Zilina | KIA | 2006 | | | |
| 슬로베니아 | Novo | Renault | 1992 | | | |
| | Mesto | Renault | 2004 | | | |
| 루마니아 | Pitesti | Renault | 1999 | | | |

자료 : www.just-auto.com, 2004, 3, 'Central Europe Management Briefing' 및 기타 관련 자료에서 정리.

동차 생산은 기존의 중심지역에서 유지 또는 강화되는 반면에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조립라인과 소형차 조립공장은 남유럽이나 중·동부유럽으로 재배치되는 생산공정의 수직적인 공간적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경제요소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던 북유럽국가-남유럽국가간의 생산활동의 수직적인 공간적 분업관계는 저렴한 생산요소를 지닌 중·동부유럽국가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즉, 북유럽국가는 시장 확대로 규모증대효과가 증대되어 기존의 자본·기술 집약산업의 집중화가 강화되는 반면에, 남유럽국가에 입지한 노동집약산업은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동부유럽국가로 이전되거나 적어도 새로운 투자 입지선택에서 남유럽국가의 유치 경쟁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유럽국가-중·동부유럽국가, 또는 북유럽국가-남유럽국가-중·동부유럽국가로 계층화된 공간적 분업구조를 나타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5. EU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입지

1) 중·동부유럽 투자입지 : 국가적 차원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중·동부유럽에 유입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344억 달러로 이 중 2/3 이상이 EU 신규회원국인 중·동부유럽 8개국에 투자되었으며,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은 중·동부유럽 8개국에 유입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었다. 국가별로는 폴란드(45.7%)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 체코(25.1%), 헝가리(13.8%), 슬로바키아(5.6%) 순으로 투자되었다. 그 밖의 발틱 3국(2.5-3.0%)과 슬로베니아(1.8%)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투자유입을 보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가 4개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와 노동코스트의 비교우위, 체제전환의 진전에 따른 정치·경제적 안정,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노력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Toubal, 2003; Disdier and Mayer, 2003) 독일기업과 프랑스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국 선정에는 시장의 잠재력과 낮은 노동비용, 낮은 관세율(독일기업), 제도적 요인(프랑스기업)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부유럽기업의 중·동부유럽의 투자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규모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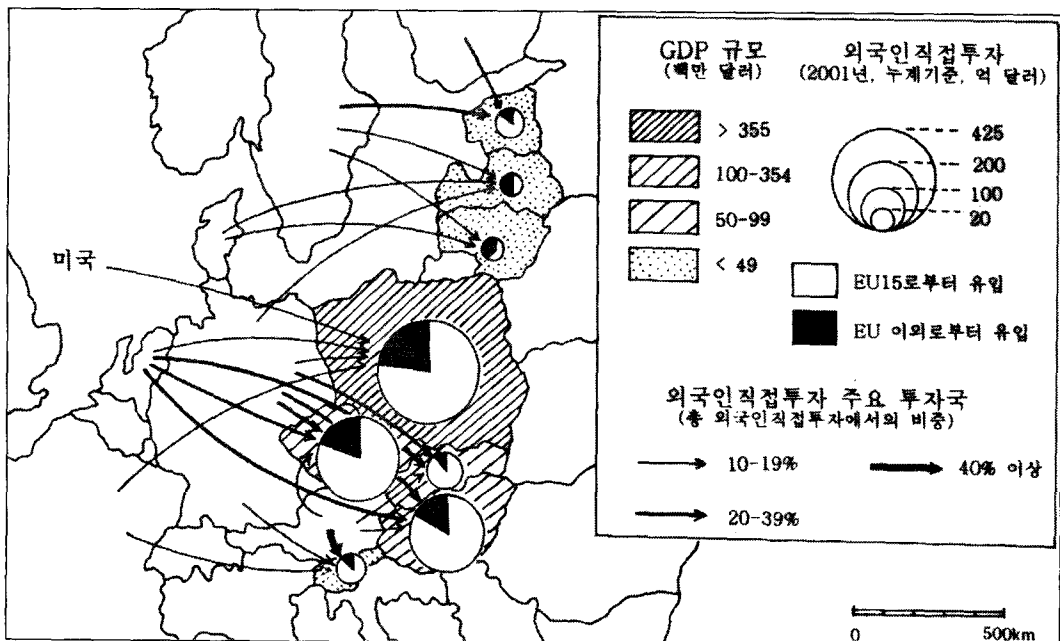


그림 6. 중·동부유럽 8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포와 원천

제를 실현하고, 생산요소가격이 저렴한 국가에 진출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투자동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입지요인 이외에 투자국 선정에는 투자대상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역사적 동질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별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2000년 말 현재 중·동부유럽 신규가입국의 총 외국인직접투자에서 EU의 비중은 체코 84%, 슬로베니아 84%, 에스토니아 83%, 헝가리 80%, 슬로바키아 80%, 폴란드 7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부유럽국가의 EU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의 유입은 투자국과 투자대상국가간의 지리적 조건과 문화·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인접한 서부유럽국가로부터 많은 투자가 유입되었으며, 슬로베니아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절반 이상을 오스트리아로부터 유입하였다. 발틱 3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1/2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부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됐으며, 특히 에스토니아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70%를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유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EU 국가의 투자대상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동부유럽에서 최대 투자국인 독일은 발틱 3국을 제외한 모든 신규회원국에서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과 함께 이 지역의 주요 투자국인 네덜란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동부유럽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부유럽 국가들은 발틱 3국의 외국인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 중·동부유럽 투자입지 : 지역적 차원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가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동·서유럽 간 국경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회원국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으로써 유럽은 동·서유럽이 통합된 하나의

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기업 활동공간도 서부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유럽지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지역으로 더 이상 서부유럽과 중·동부유럽을 분리하여 선택하지 않으며, 그 대신 투자비용과 경영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더 유리한 입지지역 또는 국가를 선택하고 있다(Disdier and Mayer, 2003). 그리고 동·서부유럽 기업간의 수직적인 공간적 생산 분업체계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입지 선택기준은 일반적으로 서부유럽과의 접근성과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밖에 노동임금과 노동력 구조, 세제 및 금융상 인센티브, 지역산업조직, 언어 등이 주요 입지선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동부유럽국가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교통·통신, 노동력, 지역산업조직, 사회적 환경, 시장 등 생산입지요인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지리적으로 서부유럽국가와 인접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과거 구 소련과의 군사·정치·경제적 동맹관계로 공업이 발달된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입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헝가리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년 누계 투자액 기준으로 수도인 부다페스트(Budapest)와 그 주변지역인 페슈트(Pest)주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의 접경지역인 지외르 소프론(Győr-Sopron)주와 보르쇼드 오보우이 쟈플렌(Borsod-Abaúj-Zemplén)주에 높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과거 사회주의 시절 광업과 군수산업 등으로 특화되었던 동부지역들(Tiefebene, Nord-Ungarn)은 극히 저조한 투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폴란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지만 수도인 바르샤바(Warsaw)와 포즈나니(Poznań), 카토비체(Katowice) 등 대도시지역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 2001년 말 외국인투자업체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바르샤바를 포함한 마조웬스키(Mazowieckie) 지역에 전체 투자업체의 약 30%가 입지해 있다. 다음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와의 접경지역인 슬라스키(Slaskie) 13.1%, 포즈나니(Poznań)가 위치한 웰코폴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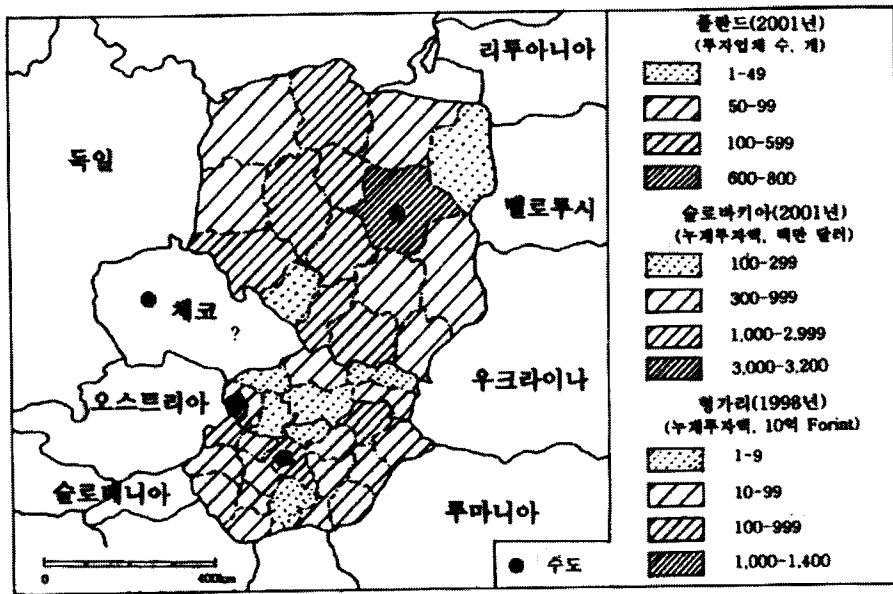


그림 7. 중·동부유럽 3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적 분포

(Wielkopolskie) 9.7%, 독일과 체코의 접경지역인 돌로스라스키(Dolnoslaskie) 7.6%, 발틱 해 연안지방인 포모스키(Pomorskie) 6.6%, 슬로바키아와의 접경지역인 마로폴스키(Malopolskie) 5.9% 등 독일과 체코, 슬로바키아에 인접한 지역에 높은 입지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발전정도가 낮은 구 동독과 접하고 있는 서부지역(Zachodniopomorskie, Lubuskie)과 동부지역(Podlaskie, Lubelskie, Podkarpaskie)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1년 말 누계 투자액 기준으로 수도인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와 그 주변지역에 전체 투자액의 약 63%가 집중되어 있다. 이밖에 헝가리와의 동부 접경지역인 코시체(Košice) 지역에 금속, 화학,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폴란드와 체코의 접경지역인 질리나(Zilina)와 헝가리와의 남부 접경지역인 트르나바(Tmava)에도 금속가공, 화학, 섬유, 자동차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한 국가 내에서도 특정지역에 대한 지리적 선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지역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하부구조, 숙련된 노동력, 효율적인 생산요소 등

입지상 비교우위를 지닌 대도시지역과 서부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동·서부유럽의 인접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서부유럽과의 인접지역은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과 저렴한 수송비 등 유리한 생산 환경으로 많은 서부유럽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원가 경쟁력이 약화된 EU기업들과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피하려는 역외 국가의 기업들은 서부유럽과 동부유럽의 인접지역을 서부유럽시장으로의 우회수출 생산기지인 '유럽판 마킬라도라(Maquiladora)'⁶⁾로 활용하고 있다.

6. 요약 및 결론

지난 40여 년간 EU는 지리적 확대와 경제통합의 진전으로 산업의 지리적 집중과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화로 경제활동공간에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최근 EU의 중·동부유럽 확대는 그 동안 산업구조 및 산업발달수준이 비슷한 수준에 있던 서부유럽의 확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양 지역간 경제요소의 차이로 경제활동의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EU의 중·동부유럽 확대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변화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입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우선, 중·동부유럽국가의 EU가입이 구체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EU기업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EU기업의 진출확대는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EU기업의 투자동기와 EU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낙후된 산업설비의 현대화와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려는 중·동부유럽국가의 투자유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EU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초기에는 지리적, 문화·역사적으로 가까운 독일, 오스트리아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점차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신시장개척과 생산기지 확보, 그리고 이 지역 경제가 독일어 경제권에 예측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덴마크, 스웨덴,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이 가세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국 선정에는 시장규모와 노동비용, 정치·경제적 안정,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치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역사적 동질성은 매우 중요한 투자국 선정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교통·통신, 노동력, 지역산업조직, 시장 등이 발달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산환경을 지닌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저렴한 수송비의 이점을 지닌 동·서부유럽의 인접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동·서부유럽 인접지역의 투자입지 추구는 원가 경쟁력이 약화된 EU기업들과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회피하려는 역외 회원국 기업들이 동·서부유럽의 인접지역을 우회수출 생산기지인 '유럽판 마킬라도라(Maquiladora)'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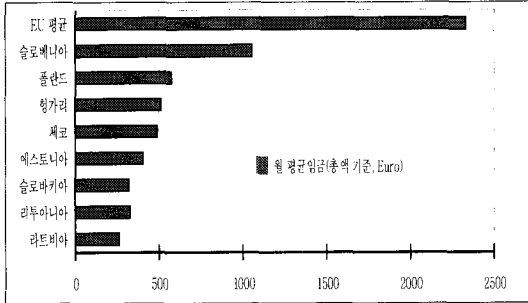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을 통해,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더불어 EU의 경제활동공간은 중·동부유럽의 특정 지역에 외국인직접투자, 특히 EU의 직접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프라와 교육수준이 높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많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체코의 프

라하, 폴란드의 바르샤바 등 수도권이 신흥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지역을 잇는 삼각 축은 유럽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서부유럽과 동부유럽, 그리고 북부유럽 및 발칸 지역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의 중요공급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서부유럽의 인접한 지역은 중·동부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시장인 서부유럽과 잠재적 시장인 중·동부유럽의 지리적 중간 위치로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생산공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최근에 가입한 폴란드와 발틱 3국, 그리고 러시아 등 발트 해를 중심으로 한 발틱 공간은 인접국가간 교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발달 가능성이 크다.

註

- 1) 유럽대륙의 지역구분은 사용되는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동·서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종식 이후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유럽대륙은 서부유럽, 중부유럽, 동부유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서부유럽(Western Europe)은 EU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유럽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지난 50년 동안의 경제적 통합으로 상호의존관계가 높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다시 북부유럽(Northern Europe)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둘째, 중부유럽(Central Europe)은 '유럽가족'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틱 3국을 포함한다. 셋째, 동부유럽(Eastern Europe)은 구소련 연방에서 분리된 구 소련계승국가들(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몰도바, 우크라이나)과 제1차 세계대전이 촉발된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발칸 국가들(구 유고연방 국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로 구분된다.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는 EU의 가장 중요한 가입기준인 '민주화'를 고려할 때, 구 소련계승국가들 및 알바니아 앞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 2) EU는 Agenda 2000 재정지원프로그램에 따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EU 가입을 신청한 중·동부유럽 국가에 총 210억 euro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위한 재정적 지원(Phare 프로그램)과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SAPARD 프로그램), 운송 및 환경 등 사회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ISPA 프로그램) 등 3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중·동부유럽 국가의 월평균 임금은 약 270~580euro로 EU평균 2,300euro의 1/4 ~1/8 불과하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임금 수준(2003년 현재)

자료 : Dresdner Bank, 2003, Invest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4) EU는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남(주변부 국가)-북(중심부 국가)의 경제 지리적 공간구조를 형성해 왔다. 산업별 GDP 구성, 경제활동 인구비, 실업률,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리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5개국을 남(the South)유럽연합 국가군으로, 나머지 10개국은 북(the North)유럽연합 국가군으로 구분된다(문남철, 2004).
- 5) 1993-99년까지 남유럽국가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EU로부터 유입된 비중은 77.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에스파냐 79.9%, 이탈리아 75.7%, 포르투갈 62.6%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남유럽국가에 투자한 주요 제조업종은 전기·전자, 운송기기, 금속·기계업종이며, 국가별로는 에스파냐는 석유화학(26.6%)과 운송기기(19.6%)에, 포르투갈은 운송기기(33.4%)와 전기·전자(18.8%)에, 이탈리아는 전기·전자(35.1%), 금속·기계(16.7%)업종에 많은 투자유입을 보였다(문남철, 2004). EU기업의 중·동부유럽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2001년 말 총 누계투자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투자분야를 이루고 있다. 투자업종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경우 음·식료, 전기·전자, 운송기기, 석유화학업종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음·식료, 섬유, 목재업종에 집중되고 있다(Hanvlik and Urban, 2003)
- 6) 마킬라도라(maquiladora)는 NAFTA 발효(1994) 이후, 미국시장을 겨냥한 미국 및 외의회원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의 접경지역에 형성된 우회수출용 생산기지이다.

文獻

김득갑, 2001, EU의 동구 확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2003, 동구의 EU 가입과 기업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김홍종·이철원·박영곤·박경석, 2003,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대외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994·1995, 폴란드 편람·체코공화국 편람·헝가리 편람.

문남철, 2002, 탈냉전 이후 서부유럽의 군수산업 위기와 지역적 대응,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4), 415-429.

문남철, 2002,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 전략: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P.E.D.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7(4), 442-459.

문남철, 2004, 유럽연합 형성과 역대 직접투자 흐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371-388.

박순찬, 2002,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변화: EU에 대한 실증분석, EU학 연구, 7(2), 5-20.

이갑수·고종환·방정록·한성안, 2003, EU 경제통합과 중심부-주변부 지역간 갈등구조, 유럽연구 18, 111-141.

이규영, 200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대외정책연구원.

이은구, 1999, 통일 이후 독일의 동유럽 진출 전략 및 전망, 한독사회과학논총, 9(2), 17-33.

이종원, 2001, EU 확대의 정치·경제적 이해, 유럽연구, 13(1), 63-78.

이종화·박순찬, 2001,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03, EU확대의 영향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Amiti, M., 1999, Specialization pattern in Europ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5, 1-21.

Brühlhart, M. and Torstensson, J., 1996, Regional Integration, Scale Economics and Industry Location in the European Union, *CEPR Discussion paper*, 1435.

Disdier, A., and Mayer, Th., 2003, How Differential is Eastern Europ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Location Choices by French Firms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CEPR Working Paper*, 2003-13.

European Commission, 2002,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1*, Eurostat,

- Luxembourg.
- Hanylik, P. and Urban, W., 2003, Industrial Developments in the *Accession Countries*, *wiiw Structural Report 2003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
- Krugman, P., 1991, *Geography and Trade*, MIT press, Cambridge.
- Lemoine, F., 1998, Integrat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the European Trade and Production Network, *BRIE Working paper*, 107.
- Lovino, I.,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andidate Countries: Sector and Countries Composition, *Eurostat*, Statistic in focus, Economy and Finance, Theme 2-55.
- Lovino, I., 2003,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ternal Financing in the Candidate Countries: Data 1995-2000, *Eurostat*, Statistic in focus, Economy and Finance, Theme 2-11.
- Lovino, I., 2003, Acceding Countries: Still attractive for Foreign Direct Investors: Data 1997-2001, *Eurostat*, Statistic in focus, Economy and Finance, Theme 2-51.
- Lovino, I. and Passerini, P., 2002, The evolution of FDI in Candidate Countries: Date 1995-2000, *Eurostat*, Statistic in focus, Economy and Finance, Theme 2-3.
- Martin, P. and Ottaviano, G., 1999, Growing Locations: Industry Location in a Model of Endogenous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43, 281-302.
- Midelfart-Knarvik, K.H., Overman, H.G., Redding, S.J. and Venables, A.J., 2000, The Location of European Industry, *Economic papers*, 142,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 Ottaviano, G. and Tisse, M., 2001, On Economic Geography on Economic Theory: Increasing Returns and Pecuniary Externaliti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 153-180.
- Passerini, P., 2003, Fall in FDI in 2001: EU-15 as main actor: FDI detailed results 1995-2001, *Eurostat*, Statistic in focus, Economy and Finance, Theme 2-12.
- Passerini, P., 2004, EU-15 FDI in 2002, *Eurostat*, Statistic in focus, Economy and Finance, Theme 2-16.
- Sapir, A., 1996, The Effects of Europe's Internal Market Program on Production and Trade: A First Assessment,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2, 457-475.
- Toubal, F., 2003, The Location of German Multinational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nlargement Economics, *R.O.S.E.S.*, June 5-6, Paris.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 년도, New York and Geneva.
- Venables, A., 1996, Equilibrium Location of Vertically Linked Industri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7, 241-259.
- <http://europa.eu.int/comm/eurostat>.
- <http://www.unctad.org>.
- <http://www.just-auto.com>.

(접수 : 2004. 9. 23, 채택 : 2004. 11. 16)